



정의의 물

이제 시작하자

1과 - 운동의 메시지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시어 악순환을 끊으신다.

도입

'정의의 물' 첫 번째 공부는 당신이 당신 자신의 '정의의 물' 여정을 시작하도록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서 이 운동이 가진 잠재력을 보도록 할 것이다. 이 교재가 당신이 세상에서 목격하고 또한 마음으로 느끼는 불의 가운데 희망을 갖도록 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서 당신이 궁극적으로 던지게 될 질문들을 묻게 될 것이다. 당신은 예수님과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다리를 놓으시고 악순환을 끊으시는가? 당신과 당신의 그룹이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진중하게 씨름하면서, 당신은 이 '정의 운동' 속에서 당신이 갖게 될 역할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시리즈는 당신이 불편해지기를, 그래서 더 깊이 신경 쓰게 되도록 요구할 것이다. 이런 방식이 인간적으로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하나의 운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좇아 탄생하게 되어있다. 첫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주신다는 점을 아는 것이다.

비디오

오른쪽에 링크되어 있는 비디오를 클릭하면 1과용 악순환 끊기 영상물을 볼 수 있으며 다운로드 할 수도 있다.

또는 다음으로 가라

<https://vimeo.com/141269678>





정의의 물

우리가 믿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는다.

우리는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을 필요로 함을 믿는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자유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돌이킬 수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는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와, 치유와, 화해의 존재가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믿는다.

우리는 젊은이들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들의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더 크신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가치를 발견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꿈 꾸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우리는 경이로워하는 것과, 놀라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의 가치를 믿는다.

우리는 안식과 소망의 가치를 믿는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세계적인 교회의 구성원들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우리 마음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분의 능력을 말한다.

우리는 변화되고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맘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창조하신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와 어울리지 않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많은 이야기들에 대응하도록 보냄 받는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구속의 능력이 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성령의 바람이 닿는 어디든 가서 소망과 진리를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불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한다.

(마태복음 28:19-20; 고린도후서 6:1)



정의의 물

교육 내용 요약

메시지 :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시어 악순환을 끊으신다.

연결

우리 모두는 어떤 순환의 고리에 갇히면 긴장하게 마련이다. 그것이 나쁜 습관이거나 어려운 상황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그러한 순환 구조에 빠지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맞서는 것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의 일부를 담당하며 살아오고 있다 - 그러한 이야기들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때때로 그러한 이야기들은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을 때도 있지만 모든 이들에게 잘 보이는 많은 이야기들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만 그것들에 맞서서 뭔가 하기에는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야기가 있다.

아픔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아. 하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은가?”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문제들에 대해 듣다 보면 “나는 또 다른 슬픈 이야기에 직면할 자신이 없어”라고 느끼며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야구나 미식축구에서 엄청난 점수 차이로 상대 팀을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처럼, 그저 “자비”가 통하기를 바랄 때가 있다. 지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아모스 예언자는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고린도후서 4:7), 우리는 무력감으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뛰어들어야 한다. 아모스의 예언자적 상상력은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이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내가 바라는 것은 정의다. 큰 바다 같은 정의!

내가 바라는 것은 공평이다. 강 같은 공평!

이것이 바로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바라는 전부다. 아모스 5:24 (메시지 성경)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상처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선에 더 신경을 쓴다면, 어떻게 이 메시지를 울려 퍼지게 하며 이 메시지로 살 수 있을까?

대답: 당신은 변화를 위해 기도한다. 당신은 하나님께 우리의 악순환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바꾸어달라고



정의의 물

교육 내용 요약

요청한다. 당신은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진가를 보여 달라고 요청한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로 여기신다는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기에 당신의 새로워진 삶은 하나님께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굉장히 사랑하신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또한 당신이 이 세상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당신 스스로를 강건케 하는 능력이 될 것이다.

요한복음 3:16, 마가복음 2:18-22, 요한복음 5:1-9

변화의 과정은 우리로부터 시작한다. 당신이 세상으로 나가기 이전에 당신은 안을 들여다 봐야 한다. 당신은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이 그들 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첫째로, 당신은 예수님이 악순환을 끊으실 수 있다고 그저 생각만 하는 정도에서 떠나 열정을 다해 현실에 다가서고 당신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이뤄 달라고 그 분께 간구해야만 한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풀장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겠는가? 풀장에 들어가도록 하는 선이 그어져 있을 것이다. 당신은 많은 돈을 들여 그 풀장에 들어갈 수 있는 표를 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풀장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물이 동할 때 그 곳에 처음 들어간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그 물 옆에서 기다려 온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치료의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는 그 물에 다다를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너무 늦었기 때문이다.

희망

생명수는 부족하지 않다. 우리의 치유는 대기자 명단에 들어 있거나, 나중에 일어나도록 유예되어 있거나, 뭔가 부족하고 손상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부러진 부분에 파스 하나 붙여 주시려고 오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당신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 가운데 들어 있는 정의를 위한 울부짖음에 응답하신다. 그 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의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시며, 우리가 치유의 일부분이 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적용

하나님은 당신 삶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순환 고리를 능히 끊으시고, 당신이 다른 이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깨어진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리를 발견하여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당신의 이야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 1) 예수님이 당신 삶에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 분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라.
- 2)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재조정하라.
- 3) 당신을 둘러싼 문화 안에 있으되, 그것에 의해 당신의 삶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삶이 만들어져야 한다.
- 4) 당신이 생명에 이른다면, 당신 주변의 세상 역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정의의 물

교육 내용 요약

활동

조원들과 함께 다리 하나를 그려라. 땅 바닥에, 또는 종이나 헝겊 위에 그려라. 다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리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리고 당신 삶에 있는 재료들로 다리를 놓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 당신 주변에 정의의 길이 놓이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겠는가?

마무리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신다. 예수님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신다. 모든 목마름을 해결시키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그 분을 신뢰하라.



정의의 물

수업 교안

메시지 : 예수님은 다리를 놓으시고 악순환을 끊으신다.

연결하는 이야기 :

당신이 아래의 것들 중 하나와 씨름했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

- 잘못된 습관에 빠져 있었던 것
- 당신 스스로와 당신 가족에게 상처를 입혔던 어떤 악순환에 빠져 있었던 것
- 당신 주변에 있었던 어떤 불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던 것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도 된다.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할 기회는 나중에 충분히 있다.)

여러분이 나눈 이야기들은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되어 있는 것일 수 있다. 어쩌면 5분 전에 발생한 일일 수도 있다. 그것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산책을 나갈 수 있다. 5분 정도 뉴스를 접하거나, 인터넷을 살피거나, 트위터의 내용을 훑어보거나, 전세계적인 문제들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웹사이트를 방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아주 많은 문제들을 말할 수 있다!

아픔

당신은 당신이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에 직면하여 스스로에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라고 말한 적이 있는가? 우리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늘 유혹 받는다 —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당신이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뭔가 변화를 꾀하기 위해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너무 많은 문제들에 대해 듣다 보면 우리는 무기력감에 빠져 “나는 슬픈 이야기를 더 이상 들 수가 없어”라고 느낀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 당신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하여 결단하는데 이르러야 한다.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에 맞서 싸우는 것은 더 힘든 법이다.

이야기:

부모들은 아이가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다. 아이가 평범하지 않은 모습으로 가만히 서서 허공을 응시한다거나 하면 눈치를 채다. 아이는 어쩌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눈을 깜박이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숨어서 용변을 보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당신은 아이가 기저귀 떼는 훈련을 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훈련을 시킬 때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리고 어떤 부모도 자신의 자녀들이 기저귀를 차고 어른이 되도록 자라면서 지저분하게 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정의의 물

수업 교안

부모들은 아이들이 이제 그만 나와야 하는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지내는 그런 상황에 계속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부모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삶은 실제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빠져 있던 죄의 순환 구조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작부터 망가져 왔으며, 다른 방법이 있음을 배우지 않는 한 우리는 그 망가진 상태에 익숙해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럴 수 밖에 없다. 당신은 이제 그 악순환을 깨뜨릴 수 있다. 악순환의 힘을 끊어버릴 수 있다. 악순환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더 이상 수동적으로 현실을 받아들이지 말라. 더 이상 알고도 상처 받는 일을 멈추라. 더 이상 감혀 있지 말라. 더 이상 마무리에 실패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 말라.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 이제 당신의 삶 속에서 죽음에 맞서고, 질병에 맞서고, 두려움과 불확실에 맞설 때가 되었다. 당신이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 나올 수 있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들이 처한 악순환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빠져 있는 악순환이 가져올 몇 가지 결과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
상처는 우리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러한 모습이 되게 만든다.
고통스러운 습관들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에 해를 끼친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들에 몰두하고 있다면, 용서가 아주 먼 일로 느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빠져 있는 악순환이 무엇인지에 대한 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감으로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상황에 대한 불만 하나로는 불의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 당신은 불만의 감정을 적극적인 저항으로 바꿔야만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황 가운데 개입하는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가능한 이야기) 당신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고장 없이 영원히 쓸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알 것이다. 전자제품들은 천천히 망가지게 마련이다. 우리가 제품을 살 때 내부의 코드는 바르게 잘 정렬되어 있다. 하지만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앱을 사용하면서 그러한 코드들은 조금씩 뒤틀려진다. 그러한 방해요소들은 전자제품의 작동이 느리게 만든다. 어쩔 때는 아예 작동을 안 할 때도 있다. 뭔가 조치를 취해도 잘 안 되기도 한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불의라는 악성 코드를 파괴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갖고 계시다.



정의의 물

수업 교안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자. 그들은 세상에서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대표하는 자들로 구별되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불의로 인한 깨어짐의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고통스러운 악순환에 빠져있다. 악순환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어버리는 습관이었다. 그들이 죄악의 길에 빠져서 자기들 좋은 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지만 그들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죄악된 삶은 계속 되었다. 그들은 같은 상황에 늘 걸려 넘어졌고, 늘 똑같이 잊어버렸으며, 같은 죄에 늘 빠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다. 즉 그것은 깨지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의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멈출 수 없으시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동시에, 정의를 향하신 하나님의 헌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르게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 창조 이래로 하나님의 활동은 모든 만물과 모든 관계들을 다시 바르게 하시는 것이다. 정의가 하나님이다. 정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정의에 헌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깨어진 상황에 눈 감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깨지지 않는 언약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는 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가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 언약을 깨지 않으시면서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찾으셔야 했다.

요한복음 3:16은 말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악하고 파괴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에 끼어들어 모든 사람들을 악순환의 고리에서 해방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어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불의들을 자신 스스로에게 감당시키고, 그 불의들을 강물같이 흐르는 정의와 마르지 않는 시내 같은 의로움으로 바꿔주셨다.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치지 않는 사랑같지 않은가?). 예수님의 사랑은 아모스가 구하던 것의 해답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상황들이 옳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그 분 안에서 결정적으로 의롭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신과 나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5장을 보라. 예루살렘에서 거행된 한 유대인 명절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발생한 이야기다.

예수님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명절을 즐기는 한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외곽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계셨는데 그 곳은 장애인과 소경과 다리 저는 자와 지체 마비자들이 있는 곳이었다. 예수님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차별이 없음을 세상을 향해 보여 주고 계셨다. 그 분이 친히 그 연못가에 계시면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우선순위가 됨을 말씀해 주셨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 연못의 물이 동할 때 마다 그 물에 처음으로 들어간 사람은 갖고 있던 질병의 고통이 치유된다고 했다. 이런 상황은 누군가가 침대 청소녀들 사이에서 껌 한 통을 개봉했을 때와 비슷하다. 먼저 껌을 집는 사람이 임자가 되고 한발 늦은 사람은 껌을 씹을 수 없다. 연못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암울한 상황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정의의 물

수업 교안

따라서 물이 동하면, 아프고 병들고 장애 있는 사람들의 경주가 펼쳐졌다. 그들은 한 사람만 치유받을 수 있는 물에 다다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단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 결핍. 이 이야기에는 결핍이 들어있다—즉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하지만 그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그 연못은 명절 축제가 벌어지는 곳에서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었다. 연못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연못이 그 곳에 있는 각 사람을 치유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자신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다림의 순환주기 속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쓸 수 있는 자원의 3분의 2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그저 연못 옆에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우리 중 일부도 연못 옆에 있을 것이다. 일부는 아마 명절 축제에 참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은 38년간 장애인으로 살아왔다. 그 사람이 그 연못 옆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많은 날들을 그 곳에서 지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겪었을 그 끔찍한 악순환을 생각해 보라. 그 사람은 매일 그 물가에 앉아있었다. 물이 동할 때 마다 그는 기어가든지 절룩거리든지 어떻게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물가에 이르려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노력한 댓가는 다른 누군가가 그를 물리치고 그 물가에 먼저 다다르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일 그런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이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다.

아마도 당신은 당신 주변에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거나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노숙자들이 길에서 지내고 있다. 아이들이 구걸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다. 물 자원이 고갈되어 간다. 누군가는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 누군가가 기초적인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할 때 당신은 그 상황이 옳지 못함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던진 첫 마디는 거의 농담처럼 들린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는다. “너는 낫고 싶으냐?” 당연히 그 사람은 낫고 싶어한다! 그 사람은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연못가에서 수십 년간 누워 있었다. 물이 동할 때마다 그는 그 곳에 다다르고자 했고, 다른 누군가가 그 곳에 먼저 이를 때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였다.

흥미롭게도,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한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정말로 이상한 대답이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한다. 실제로 그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사는 삶이 편안해 지면서 우리는 그 고리 자체를 끊어 버리는 방법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알고 희망하는 것이 그 정도인 것이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걸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서, 자리를 걸어 가지고 걸어갔다.”

예수님이 그 악순환의 고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부수신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쳐 주신다. 그리고 그 악순환의 고리 가운데서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없는 정의의 기쁨에 대해 가르쳐 주신다.



정의의 물

수업 교안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너 역시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엮어매는 망가진 구조 속에서 제기된다. 이 질문은 어떤 사람들이 단지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신음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자원을 당연시하며 심지어는 생각 없이 낭비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제기된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악순환의 구조 가운데 개입하시기를 열망하는가? 당신은 정말로 강물같이 흐르는 정의를 원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신의 삶이 준비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들의 옛날 방식의 삶에 매여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는지를 궁금해한다. “왜 제자들은 사회의 관습과 적절한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가?”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깎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댄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더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마가복음 2:21-22

(망가진 것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라--그런 망가진 상황은 전체를 바꿔야지 일부만 고칠 수는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나는 망가져 버린 상황의 일부만 덧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공허함의 일부를 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몰고 있는 구식 자동차의 새로운 타이어가 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네 삶의 익숙한 행태에 들어맞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삶에 강하게 개입하는 힘이다. 나는 네게 익숙한 삶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기 위해 왔다. 그리고 너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적용하기

당신은 당신 삶에서 지속되는 또는 당신 주변에서 목격되는 악순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당신은 물을 수 있다. “내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지?” 첫번째 단계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다. 진실로 예수님께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여기 오래 되고 문제 많은 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만들어 온 엉망진창의 삶의 악순환이 있습니다. 제 삶과 제 주위에 가득한 잡동사니들입니다. 제 자신의 죄 뿐만 아니라 깨끗하지 못한 물까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주십시오.”

“다리를 놓아주셔서 이 악순환으로부터 탈출시켜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도 한다. “망가진 것들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시키는 주님의 사역에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키야는 방글라데시에 사는 과부이자 자신의 아들과 함께 하는 어머니이다. 물을 찾는 것은 힘든 일이다. 강과 호수의 물은 소금기가 가득하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그런 소금기가 있는 물에서 목욕을 한다. 그들은 빗물을 받아 마시는 물과 조리용 물로 사용한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되면, 그녀는 오토바이를 빌리거나 기사를 고용해서 1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물을 구한다. 괜찮은 물이 말라버리면 그녀는 배를 타고 다른 호수로 간다. 그곳에 가려면 하루가 종일 걸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라면 그녀는 뭐든지 할 것이다.

틸락은 13세의 소년이다. 그는 스리랑카에 산다. 그는 엄마를 도와 매일 약 1km 떨어진 우물에 가서 물을 구해 온다. 그는 다섯식구가 있는데 그들은 틸락이 길어온 그 물을 하루 동안 함께 나눈다. 농작물에 물을 주는 방법은 비 오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마을에서 나온 각종 폐기물들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다. 이는 많은 질병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다. 그는 마을의 물 오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는 일을 돕고자 하는 희망이 있다.



정의의 물

수업 교안

첼시는 미국에 사는 15세 소녀다. 그녀가 다니는 학교에는 10군데가 넘는 물 마시는 곳이 있다. 저수지에서부터 잘 관리되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처리된 물이 수도꼭지를 열면 바로 나온다. 그녀는 부모님께 집 마당에 잔디를 심는 것 대신 농작물을 심자고 제안했다.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물을 아끼고 또한 야채를 사먹는데 드는 돈을 절약한다. 그녀는 이런 결정들을 통해 소중한 것을 잘 보존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좀 더 줄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그저 연못 옆에 앉아 있거나, 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삶을 무시한 채 그저 명절만 즐기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예!”라고 분명히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이것이 나를 묶어매고 있는 악순환입니다. 이것이 나를 상하게 만들고 있는 삶의 형태입니다. 이것들을 받아 주소서. 그리고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단번에 죄의 순환 구조를 깨뜨려 버리기 위해 오셨다. 어떤 상황들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상황은 여전히 그러할 것이다.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잘못된 구조나 상황이 무엇이든지 간에 당신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 된다. 당신은 적극적으로 그것들에 대해 저항할 수 있고 저항해야만 한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네 삶의 순환 구조를 내게 넘겨라—죄의 순환구조, 두려움의 순환 구조, 후회의 순환 구조, 중독의 순환 구조, 또는 (빈 칸을 채우라). 망가진 삶의 방식을 거부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겠다. ... 네가 나에게 대해 목마르다면,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있는 물의 상징인 예수님의 사역과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필요를 같이 비교할 것이다.

물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도 없다.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이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영혼도 갈증을 느끼를 알고 계셨다. 당신의 첫 번째 과제는 우리가 ‘정의의 물’ 여정을 떠나는 동안 물만 마시는 것이다. 당신이 물을 마실 때 마다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을 생각해 보라. 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상황들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라. 당신의 삶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라.

마무리

하나님은 당신 삶의 악순환을 끊어 낼 수 있으시다. 또한 당신 삶의 이야기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로 하여금 망가진 삶에서 탈출하여 다리를 건너 온전한 삶으로 나가도록하기를 희망하신다.

1. 예수님이 당신 삶에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라.
2.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도록 재조정하라.
3. 당신을 둘러싼 문화 안에 있으되, 그것에 의해 당신의 삶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삶이 만들어져야 한다. 당신이 생명에 이른다면, 당신 주변의 세상 역시 생명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제 당신은 ‘정의의 물’ 여정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당신은 믿음 안에서 성장할 것이고 물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다. 물이 중요하다.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다. 물은 사람들이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고귀한 것이다. 사람들이 마시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모두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당신은 잘못되어 왔던 것에 대해 배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얻게 하는 것이다.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4)



정의의 물

질문

리더 혹은 부모를 위한 제안:

당신이 이끄는 조나 가족에게 적합한 질문들을 던지라. 침묵도 좋은 것일 수 있다. '예/아니오'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각 사람이 토론에 서로 다르게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라. 당신은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는 부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 그룹 토의를 더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다.

그룹 토의를 위한 질문들

- 1) 당신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목격하는 것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 2)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들을 변화시키기에는 당신 자신이 너무 작거나 하찮게 느껴진 적이 있는가?
- 3)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우리 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당신 자신의 삶 속에서 영망진창이었던 악순환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신 방법들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 4) 예수님은 연못가에 있던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낚고자 하느냐?” 그 사람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5) 당신의 삶이 하나의 다리라면, 그것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개인적인 특징이나 성품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가라.)